



모과나무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Chaenomeles sinensis*
- ▶ 한명 : 木瓜, 花梨木
- ▶ 일명 : かりん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과일 중에서 가장 못생긴 편이어서 흔히 못생긴 사람을 「모과같이 생겼다」고 비유한다. 모과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과수로 가꾸어진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 도입되어 열매를 약재로 쓰는 과수였다. 70년대 이후 봄을 타서 조경수로 식재된 모과나무는 대부분이 경남북, 전남북의 농가 주택에서 오랜 세월 채마밭 변두리에서 자라던 것을 싹값에 사서 서울로 혹은 별장으로 이식되어 수난을 겪었다. 서울의 개인 주택이나 별장의 입구에 식재된 모과나무는 천둥번개의 타깃이었다. 왜냐하면 모과나무는 다른 어떤 수종보다 토양중의 수분흡수량이 많아서 수체 내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우(憂)를 범하지 않았다. 농촌의 모과나무는 어느 곳에서도 주택가가 가까이 식재된 곳은 없다.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채마밭 변두리이다.



▲ 모과나무

1. 생태적 특성

중국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중부 이남의 마을 주변에 심고 있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서 나무의 높이는 10m, 직경 80cm까지 자란다. 수세는 강건하고 양수로서 맹아력이 왕성하며 어느정도 추위에는 강하나 오래전에 도입된 개량되지 않은 모과나무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여 중부 이남에만 식재하였다. 해변가나 대기오염이 심한





▲ 모과나무

도심에서도 잘 견디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적윤지에서 생장이 왕성하고 개화 결실이 잘 된다.

2. 형태적 특성

어린가지에 가시가 없고 어릴 때는 털이 있으며 수피는 붉은 갈색과 녹색의 얼룩무늬가 있으며 비늘 모양으로 벗겨진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상 난형으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뾰족한 잔 톱니가 있으며 어린잎은 선형으로 뒷면에 털이 있다가 점차 없어진다. 꽃은 지름 2.5~3.0cm로 5월에 연분홍색으로 피며 1개씩 가지 끝에 홀로 핀다. 열매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지름 8~15cm로 목질이 발달하며 황색으로 익는다.



▲ 모과나무



▲ 모과나무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국내 자생하거나 도입된 수종 중 나무줄기가 벗겨지면서 얼룩무늬의 수피를 만드는 수종은 노각나무, 모과나무, 버즘나무 등이 있는데 자생종이 아닌 도입된 나무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수피를 보인다

새잎이 나면서 피는 연분홍의 꽃은 몰래 숨어서 엿보는 이웃집 새색시 볼을 닮았는지 짐차 붉어지기만 한다.

가을에 익는 노란색의 열매는 가을의 풍성함과 향기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4. 번식법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노천매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며, 개량된 우량품종은 절접을 통해서 증식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모과는 과일이면서도 과육이 석세포로 되어 생식을 할 수 없어 과일 대접을 못 받고 천대받지만 향기만은 비길 데 없어 화초 못지않게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

모과는 그 열매의 향기가 그윽하여 차나 술을 담그는데 사용하며 한방에서도 약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